

국힘, 서민·청년·소상공인 예산 증액 나선다

정책위 내년 예산안 전면 재검토 정부총액은 유지 우선순위 재조정 국민통합위 제안 사업 반영 관측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서민·청년·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확 늘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사흘 전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수정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긴축재정 기조에 맞게 총액은 유지하되, 우선순위를 적극 재조정해서 필요불급한 항목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 후유증과 최근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꼽힌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기반 지원 사업, 대기업과의 경쟁력 지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청년세대 지원사업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내 자립준비청년 발굴 사업부터 주거 및 자립정착금 확대, 심리·정서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기조는 전남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

동에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R&D 예산의 경우 항목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증액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소관 부처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율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예산안 증액 드라이브에는 연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카드다.

전날 회동에서 당이 민생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기로 한 만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예산을 '민생 친화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불거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몸 낮추자 국힘 "원팀으로 변화 의지" 비주류 의원들도 '국정 기조 전환' 기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저와 내각이 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당이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챙기고 앞장서 이끌겠다"라고도 말했다.

보선 패배 후 재편된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 인선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메시지는 '원팀'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당 내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제 회동은 더 업그레이드된 당·대(당과 대통령실) 관계 설정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 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실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윤(진윤석열)계로 꼽히는 이용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당정 회의 주 1회는 역대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그만큼 당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년 총선에 대비해 살짝 불평은 당내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재정비해서 가자'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에 "당과 대통령이 함께 민생을 말하며 같이 호흡을 맞춰 팀워크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의원들은 대통령이 새 지도부에 신임을 준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선 패배 이후 지도부에 강한 어조로 쓴소리하던 비주류 성향 의원들도 달라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메시지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던 홍문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조로 바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를 가진다"고 답했다.

허은아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던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해야 한다"면서 "회초리 맞았으니 '아픔'이라는 성의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던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회동은 당·대 관계 변화에 대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첫발은 잘 댄 것 같다"면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소통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더 진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만간 구성될 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인적 구성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말뿐인 혁신'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서동용 "의대 쏠림에 서울대 합격 10% 미등록"

서울대 합격생의 10% 이상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붙어도 가지 않는 학과 1위는 치의학대학원(치의학과), 2위 간호대, 3위 약대, 4위 수의과대 순이며 의대 쏠림 현상이 최상위 서울대학교 인재 영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19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수시와 정시를 합친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이 미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의 12.72%로, 최근 3년간 평균 10.3%의 최초합격자가 서울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과대학별로 3년 동안 최초합격자 미등록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학과는 의과대학이 유일했다. 반대로 신입생 미등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단과대학은 치대, 간호대, 약대, 수의과대 순

으로 치대 치의학과의 경우, 평균 34%의 최초합격자가 미등록했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치대를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는 원인으로 다른 대학의 대에 합격한 것 말고는 특별한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연합수'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정확하게 의대로 이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자퇴생도 4년 만에 70%나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193명이던 자퇴생이 2022년에는 328명을 기록하며, 매해 신입생의 약 10%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지역·필수의료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사우디·카타르 4박6일 국민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학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속

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소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민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